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전문직업적 신념 및 태도

양승경[†] · 김영남¹

대구산업정보대학 치위생과, ¹경북대학 치위생과

Professional Belief and Attitud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eung-Kyeong Yang[†] and Young-Nam Kim¹

Dept. of Dental Hygiene, Daegu Polytechnic College University, Daegu 706-711, Korea

¹Dept. of Dental Hygiene, Kyungbuk College, Pocheon 487-717,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fessionalism of dental hygiene students as dental hygienists, who received education to become dental hygienist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Concerning the relationship of degree programs to the factors of professionalis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in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ce, beliefs in service to the public and autonomy according to degree programs($p < 0.001$),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were found belief in self-regulation and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ccording to degree programs($p > 0.05$). 2. As for connections between geographic region and the factors of professionalis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ce and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p < 0.001$) according to geographic reg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were found in beliefs in service to the public and autonomy($p < 0.01$),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control($p > 0.05$). 3. Concerning links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factors of professionalis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ce, beliefs in service to the public,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nd autonomy($p < 0.001$), and a belief in self-regulation($p < 0.05$). 4. In regard to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background variables according to bachelor's degree programs($p > 0.05$),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s were found according to geographic reg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system($p < 0.001$).

Key words Professionalism, Dental hygienist, Dental hygiene curriculum.

서 론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전문직(profession)의 속성들을 총괄하는 의미¹⁾로 하나의 직업이 사회성원들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특수한 직업 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초창기부터 전문직화를 추구해온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특성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전문직업인이라고 내리는 주관적 평가로 전문직으로서 직업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전문직의 구성원이 갖는 정체성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전문직으로 알려지거나 인정받고 있는 전문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높은 전문직업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²⁾. 다시 말해 어떤 직업이 사회

로부터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 직업의 구성원이 높은 전문직업성을 갖게 되는 것은 별개라는 의미이다.

전문직에 대한 이론 중 권력이론은 전문직업성을 구조적 요건으로 보기보다는 전문직이 구성되는 관점에서 형성된 구성원들의 태도로 파악한다. 이것은 전문직업성을 직업의 어떤 형태적 특성으로 보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소망이나 기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고, 전문직업성의 여러 특성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구축에 성공한 전문직의 특성을 사후적으로 묘사한 것일 뿐 흔히 전문직으로 불리는 다른 직업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아니다³⁾. 이런 의미에서 전문직업성은 직업구성원들이 사후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이자 이데올로기이지, 전문직의 객관적 요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문직업성을 일반직과 전문직을 구분하는 척도로서 전문직에 대한 접근방법들 중 전문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느끼는 태도로 보고자 한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53-749-7333
Fax: 053-749-7103
E-mail: ysk2809@hanmail.net

전문직 구성원들의 태도적 속성을 고려한 전문직업성에 관한 연구는 Hall¹⁾에 의하여 크게 진전되었으며, 태도적인 면, 구조적인 면, 조직적인 면으로 나누고, 태도적 측면을 전문직업성이라고 정의하였다⁴⁾. 또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소명 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5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전문직업성 척도(professionalism scale)를 개발하였다. 이후 사회적인 요인들 중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전문직업성을 강화시키고자하는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그 중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인출하는 과정이며 조직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지식·기술·태도들을 가르치거나 주입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때, 질 높은 치과위생의 제공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치과위생 인력의 확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이라는 실천영역의 자격은 지식과 기술을 쌓아올린 습득이 전제로 되며 전문직으로서의 완성에는 기본적인 교육의 습득과 실천현장에서의 일정한 훈련이 불가결하다. 이 두 바퀴가 통합하여 비로소 전문직으로서 탄생하게 되며, 자격의 부여는 전문교육을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 및 그 유효성은 교육 참여자의 전문직업성 뿐 아니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이나 직무만족 및 조직 몰입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성이 강조 된다⁵⁾.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임상실습 현장은 치과위생의 전문성을 훈련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의 장이며 치과위생의 질과 치과위생사 스스로의 직업적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실습현장에서 실습 치과병(의)원의 조직체거나 분위기, 실습학생 업무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실습 기준, 평가방법 등이 체계화 되지 못한 이유로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으로 치위생 전공에 대한 회의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곤 한다⁶⁻¹¹⁾.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재직하는 치과위생사에게는 짧은 직업수명과 잦은 이직, 직무범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¹²⁾. 이는 상당부분이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업무중첩과 직무갈등에서 기인하며, 치과위생사로서 자기존중감이나 전문직으로서의 자아개념에 대한 혼란,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으로 작용 한다¹³⁾.

따라서 치과위생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직업에 대한 신념과 긍정적 태도와 함께 치과위생의 전문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적 소명감과 자신감 및 책임감, 치위생 대상자에게 전인적이고 질적인 치과위생을 제공할 의무 즉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⁴⁾. 또한 직업의

전문성의 인정과 권한은 그 분야의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통해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때 유지되며, 대중으로부터 인정과 명성, 권력 및 권위를 지니게 되므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 된다¹⁵⁾. 정 등¹⁶⁾의 연구에서 Clovis는 미국과 캐나다의 치위생직이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나 외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시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어떤 직업이 사회로부터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 직업의 구성원들이 높은 직업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특성보다는 전문직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¹⁷⁾. 현재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제도의 빠른 변화와 양성교육기관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치과위생사의 내재적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인식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행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을 받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배경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적 신념 및 태도의 현재를 탐색하고, 추후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의 정의적 측면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치위생과 학생의 선정기준은 2009년 3월 기준 전국 67개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 중 2006년 이전 학과가 개설되어 최종 학년이 있는 53개 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 중 권역별 유층표집방법에 의하여 2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2010년 졸업예정인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학생은 전문학사학위과정 790명(84.6%), 학사학위과정 144명(15.4%)으로 총 934명(100%)이다. 권역은 4개 권역으로 수도권,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소재 9개 대학 350명(37.4%), 중부권은 충남, 충북, 대전 소재 4개 대학 192명(20.6%), 경상권은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대구 소재 5개 대학 194명(20.8%), 호남권은 전남, 전북, 광주, 제주에 소재 5개 대학 198명(21.2%)이었다. 연구대상의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서는 학교의 초기 학제개설이 2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개설되어 현행 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전환된 학교(이하 2년으로 표기)의 175명(18.7%), 1994년 이후 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하 3년으로 표기)으로 개설된 학교의 615명(65.8%), 3년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으로 개설되어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된 학교(이하 3+1년으로 표기)의 88명(9.4%), 학사학위과정(이하 4년으로 표기)으로 개설된 학교의 56명(6.0%)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방법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연구자가 직·간접 방문 및 우편, E-mail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실시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연구목적에 부적절하게 응답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934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성 요인에 관한 연구도구는 Hall(1968)이 개발한 전문직 특성도구(Professional Inventory)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자신의 학업 및 업무에 있어 전문가 조직 및 동료들의 의견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전문조직 준거성 6문항, 공공봉사심 5문항, 자기통제에 대한 믿음 3문항, 소명의식 5문항, 자율성 5문항 등 5개 영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요소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Hall¹⁾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6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예비조사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는 0.7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집단별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둘째,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Value를 이용하여 Cronbach's α 계수로 나타냈다. 셋째, 배경요인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학위과정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

치위생 학사학위과정의 학생들은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평균 4.07 ± 0.59 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 요소가 평균 3.22 ± 0.59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위생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평균 3.88 ± 0.5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명의식' 요소에서 평균 3.28 ± 0.63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자율성'이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통제'와 '소명의식' 요소에서 $p > 0.05$ 로 나타났다(Table 1).

2. 권역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

행정권역 별 결과는 수도권(평균 3.98 ± 0.53), 중부권(평균 4.01 ± 0.49), 경상권(평균 3.90 ± 0.57)은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호남권은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이 평균 3.77 ± 0.6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 별로 평균이 낮게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소명의식'이 평균 3.22 ± 0.58 , 중부권(평균 3.35 ± 0.54)과 경상권(평균 3.33 ± 0.63)은 '자체규제에 대한 통제', 호남권은 '소명의식'이 평균 3.28 ± 0.63 으로 나타났다. '전문조직의 준거성'과 '소명의식'은 지역별로 $p < 0.001$ 수준,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과 자율성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통제'요소는 $p > 0.05$ 로 나타났다(Table 2).

3. 학제개설 배경에 따른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서는 2년(평균 3.81 ± 0.49), 3년(평

Table 1. The factors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degree programs

n=934

	Bachelor's degree	Associate degree	Total	t(p)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ce	4.07±0.59	3.88±0.55	3.91±0.56	.470(0.000)
Beliefs in service to the public	3.62±0.59	3.83±0.56	3.80±0.57	.581(0.000)
Belief in self-regulation	3.22±0.59	3.32±0.57	3.30±0.57	.629(0.066)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3.25±0.65	3.28±0.63	3.28±0.63	.387(0.617)
Autonomy	3.90±0.61	3.74±0.54	3.77±0.56	.654(0.001)

Table 2. The factors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ographic region

n=934

	Metropolitan	Central	Gyeongsang	Honam	Total	F(p)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ce	3.98±0.53	4.01±0.49	3.90±0.57	3.68±0.59	3.91±0.56	16.011(0.000)
Beliefs in service to the public	3.72±0.61	3.88±0.49	3.87±0.55	3.77±0.60	3.80±0.57	4.619(0.003)
Belief in self-regulation	3.26±0.58	3.35±0.54	3.33±0.63	3.31±0.54	3.30±0.57	1.302(0.273)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3.22±0.63	3.39±0.58	3.38±0.61	3.15±0.67	3.28±0.63	7.636(0.000)
Autonomy	3.82±0.57	3.83±0.50	3.67±0.54	3.70±0.59	3.77±0.56	4.845(0.002)

Table 3. The factors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establishment background of the educational system

n=934

	2year	3year	3+1year	4year	Total	F(p)
Use of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ce	3.81±0.49	3.90±0.56	3.97±0.60	4.22±0.54	3.91±0.56	8.326(0.000)
Beliefs in service to the public	3.69±0.51	3.87±0.57	3.45±0.52	3.89±0.60	3.80±0.57	7.077(0.000)
Belief in self-regulation	3.25±0.51	3.34±0.58	3.15±0.54	3.33±0.66	3.30±0.57	3.238(0.022)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3.19±0.57	3.30±0.64	3.08±0.57	3.53±0.68	3.28±0.63	7.541(0.000)
Autonomy	3.66±0.50	3.77±0.55	3.84±0.63	4.01±0.55	3.77±0.56	6.323(0.000)

Table 4. The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the students n=934

Background variables		M±SD	t or F(p)
Degree programs	Bachelor's degree	3.61±0.42	0.004(0.908)
	Associate degree	3.61±0.40	
Geographic region	Metropolitan	3.60±0.40	6.175(0.000)
	Central	3.69±0.36	
	Gyeongsang	3.63±0.42	
	Honam	3.52±0.41	
Establishment background of the educational system	2 year	3.52±0.33	10.164(0.000)
	3 year	3.63±0.41	
	3+1 year	3.50±0.38	
	4 year	3.80±0.43	
Total		3.61±0.40	

균 3.90±0.56), 3+1년(평균 3.97±0.60), 4년(평균 4.22±0.54) 모두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가장 높았으며, 2년(평균 3.19±0.57), 3년(평균 3.30±0.64), 3+1년(평균 3.08±0.57)은 '소명 의식'이 가장 낮았고, 4년은 '자기규제에 대한 통제' 평균 3.33±0.66으로 가장 낮았다. 통계적으로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소명 의식', '자율성'에서 $p<0.001$ 수준, '자기통제'에서 $p<0.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치위생(학)과 학생의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은 평균 36.1±0.40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위과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권역별로는 중부권에서 평균 3.69±0.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에서 평균 3.52±0.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학제의 개설배경에 따라서는 '4년'이 평균 3.80±0.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1년'이 평균 3.50±0.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01$) (Table 4).

고 찰

치과위생사는 최근 현대 의료 환경의 첨단화, 의료서비스의 경쟁, 치위생 대상자들의 욕구 다양화로 지속적인 의료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며, 시대의 요청에 발

맞추어 능력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전문직업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질 높은 치과위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며, 바람직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신념과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 전문직은 장기간의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체계의 교육과 훈련, 경험에 의하여 공공에 대한 일정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말한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가지며, 이로서 전문적인 권위를 부여받는다. 또한 전문조직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며, 전문적인 정보를 교류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사회화하여 공유하여,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율적이고 배타적인 권위와 권력을 부여 받아 전문성의 질을 관리하고 유지 발전시킨다. 이들의 윤리강령은 자기규제이고 전문직업인 동료에게 가장 강력한 참조집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¹⁸⁾. 이와 같은 전문직업인들이 갖는 독자적인 속성에 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선행되어 져야 할 특성이며,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계속적인 재조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귀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 집단의 전문직업적 신념 및 태도는 평균 3.61±0.40으로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이¹⁹⁾의 연구는 평균 3.42,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²⁰⁾의 연구에서 나타난 3.30±0.30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학위과정에 있어서는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과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권역별로는 중부권에서 가장 높았고, 경상권, 수도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났다($p<0.001$). 학제개설배경에 따라서는 4년이 가장 높았고, 3년, 2년, 3+1년 순으로 나타났다($p<0.001$).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조직 준거성은 전문직업인이 일을 할 때 사고와 판단의 주요한 원천인 공식조직과 비공식 동료집단 모두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이¹⁹⁾의 연구에서는 전문조직의 준거성이 평균 3.12로 전문직업성 요소 가운데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고, 권²⁰⁾의 연구에서는 평균 2.9±0.4로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위과정, 권역,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p<0.001$). 치과위생사 집단을 대상

으로 한 이¹⁹⁾의 연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의 전문조직의 준거성 요소에 대한 결과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치과위생사 집단에서 가장 낮은 요소로 나타난 전문조직의 준거성 요소가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²⁰⁾의 학생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도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전문조직의 준거에 대한 태도와 신념 교육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신념이 사회 조직 내에서의 관계와 구조의 특성에 따라 변이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즉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전문조직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과 전문직이 수행하는 일은 공중과 실천가 양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¹⁹⁾의 연구에서는 평균 3.70으로 전문직업성 요소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고, 권²⁰⁾의 연구에서는 3.5±0.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80±0.57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위과정에 따라 전문학사과정이 학사과정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01),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4년, 3년, 2년, 3+1년 순으로 나타났다(p<0.001). 권역에 따라서는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수도권으로 나타났다(p<0.01).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있어 전문적 태도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신념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된다.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다고 믿을수록,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일을 수행한다고 믿을수록 직업에 만족하고 조직에 몰입하게 될 것이다. 곧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될 것이다⁵⁾.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성 요소 가운데 다소 높은 요소로 측정되고 있지만, 학위과정과 권역, 학제개설 배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 번째로 자기규제 즉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은 전문직업인의 일에 관한 판단의 주체는 동료 전문직업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¹⁹⁾의 연구에서는 평균 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권²⁰⁾의 연구에서는 2.9±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3.30±0.57로 다소 낮은 요소로 나타났고, 초기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서 3년, 4년, 2년, 3+1년 순으로 나타났으며(p<0.05), 학위과정과 권역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은 사회화 과정에서 기존 사회에는 적절한 행동의 기준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게 되면 특정 행동의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어, 결국 다양한 기준들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맞도록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게 한다²¹⁾. 또한 자기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자이존증감에 영향을 미쳐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한다²²⁾. 따라서 사회에 예속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들에 비해 사회화 과정 속에 있는 학생들은 자체규제에 대한 확신이 미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소명의식은 하는 일에 대한 전문직업인의 헌신과 비록 외부적 보상이 적더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의미하며, 이¹⁹⁾의 연구에서는 평균 3.3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권²⁰⁾의 연구에서는 3.5±0.4로 다른 요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3.28±0.6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이 가장 높았고, 근소하게 경상권, 수도권, 호남권 순으로 나타났다(p<0.001),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서는 4년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3년, 2년, 3+1년 순으로 나타났다(p<0.001). 학위과정에 따라서는 p>0.05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다른 직업들에 비해 근무환경이나 보수수준이 열악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소명의식은 더욱 강조된다. 소명의식은 그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며, 소명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고하였다²³⁾. 본 연구에 따르면 학위과정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직업성 요소 가운데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더욱이 권역과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소명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힘써야 하며, 지역과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서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로 자율성은 환자, 전문직이 아닌 사람, 고용조직으로부터의 외부적 압력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느낌을 의미하며, 이¹⁹⁾의 연구에서는 평균 3.31로 집단에서 보통정도 수준의 요소로 나타났으며, 권²⁰⁾의 연구에서는 평균 3.60±0.5로 집단에서 가장 높은 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은 평균 3.77±0.56으로 전문학사과정보다 학사학위과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중부권에서 가장 높았고 근소하게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순으로 나타났다(p<0.01). 학제개설배경에 따라서는 4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1년, 3년, 2년 순으로 집단별로 상이하게(p<0.001) 나타났다. 이는 김²⁴⁾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력과 근무경력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율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학제개설 배경의 결과와 일치했다. Jackson²⁵⁾은 자율성이 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업무성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Alexander 등²⁶⁾은 병원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이직률에 대한 연구 결과 지각된 자율성이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에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자율성은 전문직의 필수 요소로서 직무만족이나 업무수행, 의사결정, 이직 등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가 되

며, 치과위생사들의 전문성 및 독자성 확보와 질적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자율성이 학생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하여 볼 때²⁷⁾, 임상실습현장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자율성은 실습학생의 학습동기 유발에 영향이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 갈등과 불확신 속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의사결정에 참여를 위축하게 하고, 치위생 업무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직업에 불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겸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양성에 힘써야겠다.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제도의 빠른 변화와 양성 교육기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내재적 전문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할 것으로 인식하여 현행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을 받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적 신념 및 태도 즉 전문직업성을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2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 2010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연구자가 직·간접 방문 및 우편, E-mail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에 관한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실시 후 회수하였으며 총 934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1.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 따라 전문직업성의 각 요소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자율성'은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통제'와 '소명의식'에서 $p > 0.05$ 로 나타났다.
2.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권역에 따라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는 '전문조직의 준거성'과 '소명의식'은 지역별로 $p < 0.001$ 수준,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과 '자율성'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은 $p > 0.05$ 로 나타났다.
3.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기관의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 요소는 '전문조직의 준거성', '공공봉사에 대한 신념', '소명의식', '자율성'에서 $p < 0.001$ 수준, '자체규제에 대한 신념'은 $p < 0.05$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연구대상자의 배경요인에 따라 치과위생사 전문직업성은, 학사학위과정에 따라 $p > 0.05$, 권역별, 학제의

개설배경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업적 신념과 태도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지만, 현행 양성교육기관의 학위과정, 권역, 학제개설 배경에 따라 즉 양성교육기관의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Hall RH: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 R 33(1): 92-104, 1968.
2. Anderson WA, Martin PY: Bureaucracy and professionalism in the social servic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analysis of conflict and congruity. J Soc Serv Res 5(2): 33-50, 1983.
3. 조병희: 개업의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2): 37-64, 1994.
4. 이철형: 수발인력의 전문직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2007.
5. 김수진: 요양보호사 교육참여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념 및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8.
6. 박정란: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의 전공과 및 임상실습에 대한 태도[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대구, 1991.
7. 장계원: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내용 및 활동 분석[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경남, 2005.
8. 장중화: 성취동기와 임상실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서울, 2000.
9. 김영남: 치위생과 학생이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논문집 4: 373-391, 2000.
10. 이춘선: 치위생과 학생의 실습여건 및 임상실습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1): 93-100, 2002.
11. 양정승: 치위생과 학생의 지역사회 구강진료기관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4(3): 205-217, 2000.
12. 강부월: 임상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인과요인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1(1): 115-121, 2003.
13. 이철우: 치과의사의 직업의식과 직무환경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구, 1997.
14. 안덕선 등: 국가시험 국제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05.
15. 장희정, 성명숙, 주영희: 임상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기본간호학회지 5(2): 324-340, 1998.
16. 장원균 등: 우리나라 치위생학 학문체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위생(학)과 교수협의회, 2009.
17. 박중우: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성 추이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1994.
18. 최윤경: 한국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과 전문 업무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2003.
19. 이지연: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이 전문직업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경남 김해, 2009.
20. 권홍민: 치위생과 학생의 전문직 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 2002.
21. 김정원: 영유아기 자녀의 자기규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양상. 아동학회지 23(4): 35-51, 2002.

22. Flynn TM: Affective characteristics that predict preschool achievement in disadvantaged children. ECDC 16(3-4): 251-263, 1984.
23. 신현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에 대한 태도가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2003.
24. 김현미: 임상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6(2): 278-289, 1999.
25. Jackson S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as strategy for reducing job related strain. J Appl Psychol 68(1): 3-19, 1983.
26. Alexander CS, Weisman CS, Chase GA: Determinants of staff nurse' perceptions of autonomy within different clinical contexts. Nurs Res 31(1): 48-52, 1982.
27. 조규환: 교사의 효능감과 자율성이 학생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17(1): 115-128, 2004.

(Received July 15, 2010; Revised August 19, 2010;
Accepted August 26, 2010)

